



미국심장협회, 심혈관계 질환 예방을 위한 사업장 건강관리 프로그램의 중요성 강조

미국심장협회(AHA)는 미국에서 제 1위의 사망원인으로 꼽히는 심혈관계 질환의 예방을 위한 사업장 내 건강관리 프로그램의 실행방안 및 그 효과를 제시하였다.

■ 미국에서는 2004년 실시된 사업장건강증진조사(National Worksite Health Promotion Survey)에서 1,553개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실시한 결과, 6.9%의 사업장에서만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 규모가 큰 사업장에서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더 활발히 실행하고 있으며, 프로그램 구성 및 실행에 필요한 인력 부족, 비용에 대한 부담, 프로그램 실행에 대한 유인책의 결여 등이 소규모 사업장에서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실행하는데 방해요소가 되고 있다.

■ 미국의 심혈관계 질환(CVD)의 심각성

- 심혈관계 질환과 뇌졸중은 미국의 주요 사망원인이며, 심장질환으로 인한 총 지출액은 3조 46억 달러에 달하고, 뇌졸중 진단 및 치료에 드는 직간접 비용이 689억 달러(2009년)에 육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

■ 심혈관계 질환 예방을 위한 사업장 건강관리 프로그램

- 기존에는 교육, 위험요소에 대한 의식 제고에 집중하였으나 최근 근무환경 변경 및 정책변화가 더 효과적인 것으로 밝혀졌다. 사업장 건강관리 프로그램의 핵심원칙은 다음과 같다.

사업장의 조직구조에 통합되어 운영되어야 하고, 사업주는 건강관리 프로그램의 실행에 앞서 위험요소 점검 및 평가를 통해 각 사업장의 요구 및 필요사항을 파악해야 하며, 현장인력 및 해당 조직 구성원의 적극적 활용을 통해 근로자 참여를 극대화해야 한다. 금연, 규칙적 운동, 스트레스 관리, 체중관리, 질병관리, 바람직한 근무 환경으로 변화 등이 대표적인 방법으로 제시되었다.

약 26만 5천여 명의 미국인이 일상생활 중 갑작스런 심장마비를 겪고 있으며, 이에 따라 자동제세동기(AED) 또는 심폐소생법(CPR)의 올바른 사용이 생명을 살리는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. 협심증, 심근경색 등 다양한 심혈관계 질환 가능성을 높이는 화학

적·물리적 유해요소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해야 하고, 심혈관계 질환 위험성이 40% 높은 밤 교대 근무자에 대한 건강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. 취약근로계층에 대한 지원으로는 생산직 근로자, 서비스업 근로자, 여성 등에 대해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.

■ **사업장 건강관리 프로그램의 경제적 이익**으로는 근로자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으로써 경제적 이익을 가져오는 것으로 나타났다. 1달러의 투자비용 당 3-15달러의 투자수익 창출이 가능하며 수익은 12-18개월 내에 달성될 것으로 예상된다.

- 다음과 같은 기타비용의 감소효과도 거둘 수 있다.

- 병가: 평균 28% 감소
- 의료비용: 평균 26% 감소
- 산재보상비용 및 소송비용: 평균 30% 감소

그 밖에 유능한 인재고용 및 유지효과, 기업이미지 향상 등에 기여하게 된다.

※ CVD: Cardiovascular Disease

(출처) <http://circ.ahajournals.org/cgi/reprint/CIRCULATIONAHA.109.192653>



경제적 유인책을 통한 중소기업 산업안전보건 향상 사례 - 오스트리아 사례

유럽 산업안전보건청(EU-OSHA)에서 발표한 보고서에서는 오스트리아의 건강증진활동 자금지원 프로젝트를 통해 오스트리아 내 중소기업에서의 산업보건 증진 활동 및 안전보건관리에 대한 대중의 인식확대를 목표로 추진하였다.

■ 오스트리아 건강증진활동 지원의 주요 목표

- 프로젝트에 대한 자금지원, 네트워크 구축, 특별행사 및 홍보활동을 통해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확대하고자 추진되었다. 본 프로그램은 보건증진 및 주요 우선 분야에 대한 자금지원을 추진하고, 보건과 구조의 개발, 네트워크 구축 및 지속적 교육에 기반을 둔 학술 활동 및 실제적 활동에 대한 자금 지원을 병행하였다.

주요 우선 분야는 “중소규모 기업의 근로자”로 선정하였으며, 지속적인 지원 체계 구축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, 기본적으로 본 프로젝트는 모든 사업장에서 참여할 수 있다.

■ 오스트리아 건강증진활동 지원 프로젝트의 지원에 대해서는 지속가능성, 확대 가능성 및 협력활동 등이 기본 전제조건이며, 각 프로젝트별로 10,000유로(한화 약 1,600만원)가 최소 지원액으로 책정되었다. 프로젝트의 전체 소요예산 중 1/3-2/3 정도가 오스트리아 보건기금으로부터 지원되었으며, 자금지원은 오스트리아 보건가족청소년부의 산하기관을 통해 지원되고 확인되었다.

■ 중소기업의 안전보건관리를 위한 저비용 자문서비스를 통해 오스트리아 사회사고보험(AUVA)에서는 안전보건경영계획(SGM; Sicherheits- und Gesundheitsmanagement)을 수립하여 중소기업 사업장의 포괄적인 안전보건관리를 지원하고 있다. 안전보건경영계획을 통해 해당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과 관련한 절차들(재)구성할 수 있는 틀을 지원하고 있다.

■ 중소기업의 안전보건관리를 위한 저비용 자문서비스의 주요 목표는 다음과 같다.

- 중소기업에서 저비용으로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, 기업의 다양한 범위에서 발생하는 직업성 유해위험요인의 감소, 일일 작업활동에 산업안전보건경영시스템을 통합하도록 추진함으로써 산업재해 예방, 근로자 개개인의 건강상의 위험 및 불

건강 상태 감소 등을 목표로 설정하였다.

■ 중소기업의 안전보건관리를 위한 저비용 자문서비스의 주요 사례

- 최초에 지원을 받은 기업은 공학응용프로그램 개발업체로서 3,000유로의 자문과 인증 서비스를 받았다.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들은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구축과 관련하여 1,000시간의 근로시간을 할애하였으며, 매 3년마다 해당 프로그램의 지속적 적용과 개선을 위한 감사를 수감하였다. 각 기업의 규모별로 자문비용은 다소 차이가 있었으나, 최소 400유로 정도로 저렴하게 진행되었으며, 기업별로 주 사용 언어를 사용하는 자문가를 통해 비용을 절감하였다. 🇪🇺

※ U-OSHA : European Agency for Safety and Health at Work

※ AUVA : Allgemeine Unfallversicherungsanstalt

〈출처〉 http://osha.europa.eu/en/publications/reports/economic_incentives_TE3109255ENC

제공 |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국제협력팀